유권자 약속
227만명 모으기

새로운 미래는 나와 이웃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 나는 4·13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합니다.
- 나는 지역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투표합니다
- 나는 돈과 향응을 거부합니다.
- 나는 총선연대가 선정하는 낙선후보를 찍지 않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	E-mail	서명

※**227만표 모으기** - 227개 지역구 10,000명의 정치개혁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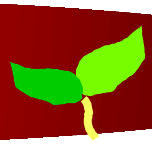
2000년 총선 안양시민연대

0343-458-9070 www.ngokorea.org / www.changekorea.org

2000.4.13

투표참여 부패추방

행 · 복 · 한 유 · 권 · 자



바꿔바꿔

시민의 힘이 정치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낙천, 낙선운동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자신있게 "유권자 약속" 운동에 나섭니다.

- 주1회 2시간의 거리 서명에도 불구하고 그간 4300여명의 안양시민 여러분께서 낙선운동지지 서명에 참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00년 총선 안양시민연대는 "4.13총선에 반드시 투표"하며 "지역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참여"하고 부정선거운동인 "돈과 향응을 거부"고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후보를 찍지 않는 「1지역구 1만 유권자 약속」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유권자 약속」운동은 총선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5백여개 단체의 회원이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거리 서약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낙선운동지지서명에 참가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지역구 1만 유권자 약속」을 통해 총선이 임박해 오면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의와 금권선거를 차단할 수 있도록 2000년 총선 안양시민연대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투표율 10%만 높여도 정치는 개혁됩니다. 물론 기권을 통한 정치적 불참도 일종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는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고 단지 정치에 관심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000년안양 총선시민연대는 여러분의 진정한 주장이 그렇게 하찮게 취급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단지 투표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크고 할 일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사와 욕망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통로를 「유권자 약속」운동을 통해 만들어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유권자 약속" 서명용지에 가족이나 이웃, 직장동료 등 주변 분들의 서명을 받아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명낙선운동서명 당시 주소와 E-mail을 적어 주신 분들께는 "유권자 약속" 서명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87-28 2층 2000년총선 안양시민연대 FAX . 0343-456-6831)

2000년 총선 안양시민연대

KYC안양군포의왕지부/노총문화정보센터/안양YMCA/안양YWCA/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안양노회/안양내일여성센타/안양시민대학/안양여성의전화/안양여성회/안양의왕경실련/안양지역시민연대/전교조안양지부